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2년 4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2. 5. 16

목 차

1. 이달의 포커스	1
2. 정책동향	4
3. 시장동향	12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이달의 포커스 :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현실

□ 윤석열 새정부 가상자산 육성 본격화... 특위확대, 전담기구 설립

14일 국민의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화폐(CDBC) 등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관련 사안을 컨트롤 한다는 계획임.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대체로 이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자산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 제도권 편입 등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 출처 : 윤석열 새정부, 가상자산 육성 본격화... 특위확대, 전담기구설립 (뉴시안 윤지환 4/14)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02>

□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의 시작

변동성이 심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음.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으로 처음으로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 직접 법인 대상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한데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 대상 영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임.

법인들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기대임. 또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화되는 기회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음.

* 출처 :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 길 열린다...신한은행, 법인 대상 가상자산 사업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4/11)

<https://www.fnnews.com/news/202204111502353295>

□ NFT거래, 카드결제 도입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대표 양주일)는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아트·대체불가토큰(NFT) 유통 서비스 ‘클럽 드롭스’에 카드결제 기능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카드결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기존 결제수단인 가상자산 ‘클레이(KLAY)’와 더불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도 NFT를 원화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됨.

그라운드X 관계자는 “카드 결제 도입으로 고객들의 구매 허들이 낮아져 보다 손쉽게 디지털 아트와 NFT를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만족도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나가는 한편, 계좌이체 기능도 빠른 시일 내 추가해 오프라인으로 결제 경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클럽 드롭스’서 원화로 NFT 산다 (ZDNetKorea 김윤희 4/12)

<https://zdnet.co.kr/view/?no=20220412085444>

□ 다시 막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중은행을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이 중단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당분간 어렵게 됐다. 4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통해 발급했던 법인 계좌 제공을 잠정 중단했음. 앞서 지난달 초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10개 미만의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한 바 있음. 이후 신한은행과 코빗에선 신규 법인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 코빗 관계자는 “추가 법인 발급도 현재로써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그간 은행권은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실명계좌를 발급해왔음. 사실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자회사 등의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우회적인 투자만 가능했던 것임.

* 출처 : 신한은행, 법인의 코인 계좌 '중단' (뉴스핌 이정윤 5/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4000735>

□ 법적지위 애매한 NFT, 카드결제 서비스 중단

그라운드X는 지난 12일 NFT 유통 서비스 '클럽 드롭스'에 카드결제 기능을 도입한다고 알렸음. 그런데 회사는 15일 카드결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안내를 공지했음. 이에 이날 판매 예정인 Kim25 작가 작품의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 그라운드X가 밝힌 카드결제 중단 이유는 카드사 요청임. 그라운드X는 공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카드결제 기능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해당 카드사들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음.

카드사가 결제 지원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 아직 NFT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드사가 선뜻 결제 지원에 나섰다가 주목받게 되자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발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음. 그러면서 결제나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도 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제 금지 대상 범위에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돼 있음. 특히 NFT는 투자 대상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법적 정의가 확실치 않음.

* 출처 : 그라운드X 'NFT 카드결제' 열흘 넘게 중단...왜?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4/27)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85>

2 정책동향

국 내

□ ‘가상자산특위→디지털자산특위’ 확대 개편…가상자산 육성 ‘탄력’

1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현재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화폐(CDBC) 등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임.

인수위 관계자는 “한은이 CDBC 발행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산업을 맡게 될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특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음.

확대 개편되는 디지털자산특위는 ▲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 점검 및 조율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 ▲법제도 개선 ▲산업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교육과 인재육성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됨.

* 출처 : ‘가상자산특위→디지털자산특위’ 확대 개편…가상자산 육성 ‘탄력’

(뉴스핌 홍보영 4/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13000785>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거래소 이해충돌방지 대안 내놓는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음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란 세미나를 개최했음.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

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거래소 몇 개만 움직이고 다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13개의 업권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주장함.

- * 출처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이투데이 박소은 4/12),
<https://www.etoday.co.kr/news/view/2123184>

□ "증권형토큰은 전자증권법으로 규정하는게 바람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이나 주식, 그림 등 전통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형토큰은 전자증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항이 가장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이며 또한 기존 전자증권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장지분증권과 수익증권, 채무증권 발행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 출처 : "증권형토큰은 전자증권법으로 규정하는게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정영일 4/18)
<https://www.fnnews.com/news/202204171356323982>

□ STO·NFT 취급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내년 설립된다

9일 부산시와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사업 범위, 추진 일정, 자본 규모 등 구체적 사업 세부안을 확정하고 설립에 참여할 사업자를 내달 초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임.

본격적인 설립 단계는 △거래소와 연계된 금융기관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당 사업 허가를 얻어 △거래소 영업을 시작하는 것까지의 과정이며 부산시는 이 과정을 최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이르면 내년 중에 부산에 설립된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물론 STO(증권형 토큰),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통합 거래하는 거래소임. 기존 거래소에선 시행하지 않는 가상자산 수탁 업무와 ICO(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절차, 증권거래소의 기업 공개와 유사) 기능도 포함함.

* 출처 : STO·NFT 취급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내년 설립된다 (부산일보 김종열 4/19)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1919271822548>

□ 정부기관 NFT 대응법 고심...분야별 특성 맞춰 연구 시작

게임, 예술, 금융 등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각 기관들이 정의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 방식으로 해당 분야별 특성에 맞춰 NFT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음.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 쟁점 분석 연구’를 진행함. 특허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NFT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을 도출하고 지재권 분쟁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를 시작했고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월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경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를 추진함. 블록체인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도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를 진행함.

* 출처 : 정부기관 NFT 대응법 고심...분야별 특성 맞춰 연구 시작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4/22)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372>

국 외

1) 미국

□ 美 버지니아, 시중 은행의 가상화폐 수탁자 자격 부여 법안 승인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미국 버지니아주지사가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관할 지역 내 상업은행이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원 법안 263(House Bill 263)을 승인했음.

미국의상원 법안 263이 승인됨에 따라 버지니아주 은행은 오는 7월 1일(현지시간)부터 수탁자 자격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 개인키(Private Key)를 보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해당 법안 시행 전까지 관할 지역 내 은행 감독기관과 지역 금융 기관국과 도입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출처 : 美 버지니아, 시중 은행의 가상화폐 수탁자 자격 부여 법안 승인
(경향게임스 유동길 4/15)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9>

□ 美 소비자금융보호국, 감독 권한 가상화폐·핀테크 업체까지 확장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해당 기관의 감독 범위를 가상화폐 시장 업체와 금융기술 분야인 핀테크(Fintech) 기업까지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처의 감독 권한 확장은 미국의 금융개혁 법인 도드-프랭크(Dodd-Frank Act) 법에 의해 지원될 방침임.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의 잠재적 위험에 기반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 은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美 소비자금융보호국, 감독 권한 가상화폐·핀테크 업체까지 확장
(경향게임스 유동길 4/27)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22>

2) EU

□ EU 금융서비스 위원 "암호화폐 규제 위해 국제적 협력 이뤄져야"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맥기네스 위원이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규제 당국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음. 그는 “암호화폐는 변동성, 내부자 거래, 러시아의 제재 회피, 환경오염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있다”며 “규제 정립을 위해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맥기네스 위원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암호화폐 상품이 규제의 틀 안으로 포섭돼야 한다”며 “규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환경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볼 문제”라고 덧붙였음.

* 출처 : EU 금융서비스 위원 “암호화폐 규제 위해 국제적 협력 이뤄져야”
 (디센터 박정현 5/3)

<https://decenter.kr/NewsView/265TSKDFKK>

□ EU 이사회, ‘NFT 발행’ 규제 강화 나선다?...”등록 의무화 가능성 有”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MiCA에 NFT 발행 관련 규제 내용이 포함된다면, NFT 발행자들은 현지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발행자가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음.

실제로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EU이사회 비공개 회의 전 프랑스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각국 정부는 NFT가 MiCA 법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를 원하는 반면, 유럽의회는 NFT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음.

의회의 입장이 반영된다면, 향후 유럽 내 NFT 발행인은 탈중앙화 기관이 아닌 현지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 현지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따라서 NFT 관련 규제가 MiCA 내용이 담긴다면, 기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넘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까지 규제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란 설명임.

* 출처 : EU 이사회, ‘NFT 발행’ 규제 강화 나선다?...”등록 의무화 가능성 有”

(코인리더스 박소현 5/6)

<http://coinreaders.com/32065>

3) 브라질

□ '브라질 상원, '비트코인 법' 상반기 승인 예정

브라질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12일 코인텔레그래프 브라질에 따르면 2015년부터 브라질 하원에서 논의 된 이 법안은 1차 심의에서 승인됐음. 상원은 이미 상원 경제 위원회에서 승인한 또 다른 암호화폐 중심 법안에 이를 첨부했음.

이라자 아브레우(39-Irajá Abreu) 상원의원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암호화폐 이정표의 승인을 가속화했습니다. 브라질을 국제 협정에 맞추는 것 외에도 더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과 사기를 피하기 위한 범죄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고 말했음.

* 출처 : 브라질 상원, '비트코인 법' 상반기 승인 예정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4/14)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4140803347557c4c55f9b3d_1/article.html?md=20220414082229_S

4) 러시아

□ 러시아 은행연합회, “제어할 수 없는 가상화폐 개인 지갑 규제 해야”

러시아 은행연합회(Association of Banks of Russia)가 해당 국가 내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비수탁 가상화폐 지갑(noncustodial crypto wallets)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국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이즈베스티아(Izvestia) 통신은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해당 국가 내 3백여 곳의 금융기관이 참여 중인 은행연합회가 가상화

폐를 통한 불법 자금을 우려해 공인 기관에 비수탁 가상화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도입을 중앙은행과 연방 금융감시원(Federal Financial Monitoring Service)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음.

러시아 은행연합회가 비수탁 가상화폐 지갑을 제어하려는 이유는 해당 장치의 기술적 복잡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음. 이즈베스티아 통신은 “은행 연합회가 정부 규제 당국에 보낸 서류를 통해 비수탁 가상화폐 지갑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접근이 힘들다고 말했다” 라며 “기술의 복잡함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라고 설명했음.

* 출처 : 러시아 은행연합회, “제어할 수 없는 가상화폐 개인 지갑 규제해야”
(경향게임스 유동길 4/19)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17>

5) 스위스

□ 스위스 국립은행, 외환 준비금 목록에 비트코인 추가 가능성 시사

스위스 국립은행의 토마스 요르단(Thomas Jordan) 총재가 지난 4월 29일 (현지시간) 해당 기관의 외환 준비 자금 보유 목록에 비트코인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토마스 요르단 총재는 비트코인 매수를 통한 외환 보유고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언급했으나 추가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스위스 국립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을 사는 건 우리 기관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상품을 직접 살 수도 있다” 라면서도 “현재의 관점에서선 비트코인이 통화보유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음.

* 출처 : 스위스 국립은행, 외환 준비금 목록에 비트코인 추가 가능성 시사
(경향게임스 유동길 5/2)

<http://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00>

6) 쿠바

□ 쿠바 중앙은행, “가상화폐 업체에 인허가권 발급할 것”

쿠바 중앙은행(the Banco Central de Cuba, BCC)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해당 국가 내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인허가권 발행 계획을 관보를 통해 알렸음. 쿠바 은행은 오는 5월 16일(현지시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인허가권을 발급할 예정임. 해당 국가 내 인허가권은 최초 1년간의 사업 운영 승인 이후 2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급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 및 개인 또는 법인으로 밝혀졌음.

* 출처 : 쿠바 중앙은행, “가상화폐 업체에 인허가권 발급할 것” (경향게임스 유동길 4/28)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58>

7) 파나마

□ 파나마 의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은 파나마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파나마는 급성장하고 있는 가상 화폐 산업을 현재의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국가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음.

국가 입법부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의 거래와 사용, 디지털 가치의 발행, 귀금속과 기타 자산의 토큰화, 결제 시스템 등을 규제하고 다른 조항들을 지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또한 '파나마 공화국을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활성화, 인터넷과 호환시켜 주민과 전 세계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출처 : 파나마 의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4/29)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4290942042331c4c55f9b3d_1/article.html?md=20220429100901_S

3 시장동향

□ 국 내

○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편블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편블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 및 유통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음.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관련 전략적 협력 ▲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 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 ▲디지털 자산 투자관리 서비스 관련 공동 개발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협업 과제 발굴 등 키움증권의 폭넓은 투자자 네트워크와 편블의 디지털 금융 및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상자산 시장 내 지배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출처 : 키움증권,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편블과 업무협약
(블록체인밸리 주은혜 조해리 4/18)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14#0AXD>

○ 티몬

티몬이 코인을 발행하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나설 예정임. 티몬을 창업했던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테라폼랩스 대표)이 가상화폐 '루나'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코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위기 임.

18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티몬코인'(가칭)을 준비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사업계획서인 백서를 발표할 방침 임. 소비자가 티몬에 입점해 있는 특정 브랜드에서 물건을 사면 브랜드 토큰을 받고, 그 토큰을 모으면 티몬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고 티몬은 티몬코인을 외부거래소에 상장시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출처 : 코인으로 새로운 기회 노리는 티몬...이르면 연내 코인 발행

(파이낸셜뉴스 이정은 4/18)

<https://www.fnnews.com/news/202204181419566589>

0 라인

네이버 라인이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음. 자체 가상자산 '링크'의 사용량과 거래량을 동시에 늘리겠다고 선언한 라인이 NFT와 링크를 쌍두마차로 코인 이코노미 확장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임.

1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일본과 글로벌 시장을 이원화해 NFT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음. 지난 13일 9000만명 이상 이용자가 있는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NFT 마켓플레이스 '라인(LINE) NFT'를 열었음.

* 출처 : NTF사업 공들이는 라인, 日마켓 열고 글로벌 확장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4/18)

<https://www.fnnews.com/news/202204181855541437>

0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가상자산 사업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음. 대신증권의 특화 분야인 부동산 금융에 증권형토큰(STO)을 접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됨.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STO 사업 진출과 관련한 내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음. 새 정부가 STO를 허용할 것을 대비해 STO 시장의 현황과 전망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이 강점을 갖춘 부동산 금융이 STO와 구조적으로 유사해 규제 완화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출처 : 증권업계 미래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 대신증권도 내부 검토 돌입 (디센터 홍유진 4/20)

<https://decenter.kr/NewsView/264RN33CEM>

0 고팍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서 28일부터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게 가능해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으며 고팍스는 지난 2월 15일 전북은

행에 법인 명의의 집금계좌(실명계좌)를 개설했음. 그리고 지난달 7일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음.

* 출처 : 고팍스, 28일부터 가상자산 현금 매매 실시 (조선비즈 조귀동 4/21)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4/21/NGKOLFWS5BGQVMH4KUQP7MG6V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0 안랩

안랩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가 “올 3분기 자체 코인 지갑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클레이튼을 포함한 메타버스월드와 큐브 생태계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안랩 측은 보안, 지갑, DID(분산신원증명) 등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으며 안랩은 이를 위해 넷마블에프앤씨 생태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음. 안랩에서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니모닉을 기억하거나 백업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해킹을 당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음.

* 출처 : 안랩, 3분기 가상자산 지갑 출시...넷마블 생태계부터 참여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4/22)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03>

0 세종텔레콤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부동산 간편 투자 앱 '비브릭(BBRIC)'의 첫 번째 상장 건물에 대한 청약 공모를 25일 개시했음.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은 세종텔레콤, 비브릭(B-BRICK),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증사업으로 '비브릭'을 진행하고 있음.

비브릭은 빌딩의 지분을 쪼개서 토큰화한 후 이를 수익증권을 만들어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빌딩 운영 수익을 돌려줌. 부동산 상품 검증과 펀드 조성은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등 컨소시엄의 대체투자 전문인력이 맡았음.

* 출처 :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기술로 건물 지분 쪼개서 판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 4/25)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20>

0 두나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천225억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로는 44위임.

지정자료(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임.

* 출처 : 두나무, 가상자산거래집단 최초 대기업 지정...단숨에 재계 44위(종합)
(연합뉴스 이보배 4/27)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086151002?input=1195m>

0 한국은행

한은은 27일 공개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올 6월 말까지 CBDC 2단계 모의실험이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IT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원활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와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했으며, 올 1월부터 2단계 실험을 통해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

한은은 "국제적으로 CBDC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 모델과 기반 기술들을 여러 측면에서 검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한은 "올 하반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CBDC 송금 등 기술 검증"
(뉴스케이프 길나영 4/27)

<http://www.newscap.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58>

0 컴투스

컴투스 그룹은 일본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블록체인 업체 더블점프 도쿄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컴투스 그룹은 더블 점프 도쿄와 앰버 그룹, 점프 크립토 등 3사가 공동 주관하는 시리즈C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더블점프 도쿄는 이번 펀딩으로 총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컴투스 그룹은 'C2X 플랫폼'에 주요 콘텐츠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C2X 플랫폼은 블록체인 생태계로 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실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유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한다.

* 출처 : 컴투스 그룹, 日 NFT기업 '더블점프 도쿄'에 투자 (이데일리 김정유 4/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48166632300712&mediaCodeNo=257&OutLnkChk=Y>

0 위메이드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UAE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에 해외 지사를 설립한다.

위메이드의 두바이에 지사 설립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믹스는 전신인 위메이드트리 싱가포르 법인에서 시작했으나 싱가포르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회가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 중 해외에 진출한 싱가포르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키면서부터이다.

반면 두바이는 블록체인에 친화적이다. UAE의 디지털경제 구축과 발전,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환경과 일상적인 소비자 서비스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선도한다. '가상자산을 위한 완전한 구역'을 목표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새로운 산업 허브 구축을 가속하고 있다.

* 출처 : 위메이드 두바이 지사 설립 한다.. 규제 리스크↓, MENA·P2E ↑

(전자신문 이현수 5/2)

<https://www.etnews.com/20220502000171>

0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놓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추후 카뱅이 실명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울초부터 카카오뱅크는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관심을 적극 보여왔음. 미래 먹거리이자 글로벌 신사업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비롯해 일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과 별도의 업무 미팅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모양새임. 최근 코인원과는 스터디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가상자산 사업 진출 노리는 카카오뱅크...코인업계 기대감 (뉴스토마토 5/8)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1544&inflow=N>

□ 국 외

0 맥도날드 월마트

11일 외신에 따르면 월마트와 맥도날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방침임.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업체 스트라이크(Strike)가 개발한 비트코인 보조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별도로 운영됨.

잭 말러스 CEO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갑을 사용해 비트코인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음. 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베스트 바이(Best Buy), 미국 최대 주택 개조 소매업체 홈디포(Home Depot)도 비트코인 결제 지원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스타벅스를 포함해 멕시코식 미국 체인 치폴레(Chipotle Mexican Grill), 미국의 대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Macy's), 호주의 식료품 체인 울워스(Woolworths), 세계 최대 사무용품 유통업체 스테이플스(Staples), 스페인의 백화점 체인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és) 등에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함.

- * 출처 : 이제 맥도날드·월마트서도 결제..빠르게 증가하는 비트코인 사용처
(한국정경신문 이상훈 4/12)
<http://kpenews.com/View.aspx?No=2274235>

0 블랙록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BlackRock) 최고경영자(CEO)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또다시 드러냈음. 블랙록은 9조달러(약 1경1056조원) 규모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래리 핑크 CEO는 13일(현지시간) 콘퍼런스콜에서 “사용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허가형(퍼블릭) 블록체인, 토큰화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고 말했음.

블랙록은 앞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USDC(USD코인)의 발행사 서클(Circle)에도 투자했음. 해당 투자에는 블랙록과 함께 미국계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영국계 글로벌 헤지펀드 마셜 웨이스(Marshall Wace), 핀 캐피털 등이 4억달러(약 5000억원) 규모로 참여했음.

- * 출처 : ‘1경’ 굴리는 블랙록 가상자산 속으로..“사용자 이익 확대할 수 있는 연구 중”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세진 4/14)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24>

0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언젠가 자사 쇼핑몰에서 가상자산인 대체불가토큰(NFT)을 팔 수도 있다고 밝혔음.

재시 CEO는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NFT가 크게 주목할 만큼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마존이 NFT를 판매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음.

- * 출처 : 아마존 CEO “가상화폐 결제, 아직 멀지만 더 중요해질 것”
(한국경제TV 이영호 4/15)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4150023&t=NN>

0 더샌드박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플랫폼 더샌드박스(The Sandbox)가 4억달러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애니모카 브랜드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더샌드박스는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으며 신규, 기존 투자자 모두 참여하며 기업가치는 40억달러로 인정받는 것으로 전해졌음.

더샌드박스는 지난해 11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2가 주도한 시리즈B 투자 라운드에서 9300만달러를 유치했음. 이는 비전펀드의 첫 가상자산 관련 투자였음. 당시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삼성 넥스트, 컴투스, 리버티 시티 벤처스, 갤럭시 인터랙티브 등도 투자에 참여했음.

* 출처 : 더샌드박스 "4억달러 투자 유치중"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윤경 4/20)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31>

0 로빈후드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Robinhood)가 가상자산 거래 사업을 해외로 확대함. 최근 주 사업모델이었던 미국 내 주식 거래 중개가 신통치 않자 ‘가상자산’ 과 ‘글로벌’ 로 이를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임.

로빈후드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기반 핀테크 앱인 지글루(Ziglu)를 인수한다고 밝혔음. 지글루는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영국에서 11종의 가상자산 거래를 비롯해 비트코인 및 영국 파운드화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 서비스 ‘부스트’, 가상자산 송금 서비스 등을 하고 있음.

로빈후드 관계자는 “현재 지글루 사용자에게 큰 변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글루를 로빈후드에 완전히 흡길 것” 이라면서 “로빈후드 브랜드를 영국을 넘어 유럽까지 확장하고 수백만명의 사용자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표” 라고 말했음.

* 출처 : 로빈후드, 가상자산 사업 해외로 확대...우선 영국으로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세진 4/20)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27>

0 코인베이스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이날부터 미국인이란 누구나 코인베이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현재 서비스는 미국과 일부 유럽에 제한돼 있음.

결제할 때마다 최고 4% 가상자산이 적립되고, 수수료나 연회비, 신용조회, 가입요건도 따로 없음. 적립대상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ETH), 스텔라루멘(XLM), 다이코인(DAI), 도지코인(DOGE) 등으로 보상자산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카드를 사용하면 비자 카드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가상자산 또는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 '코인베이스 카드' 쓰면 가상자산 리워드 최대 4% 지급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4/22)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36139>

0 코메르츠뱅크

독일의 2위 규모 상업은행인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가 해당 국가 연방 금융 감독청에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거래 서비스 제공 자격을 신청했다고 현지 언론인 뵘르젠-자이퉁(Börsen-Zeitung)이 지난 4월 14일 보도했음.

독일 연방 금융 감독청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해당 국가 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 및 수탁업 관리를 감독하고 있음. 독일 감독 당국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가상화폐 서비스 운영업체에 최대 5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제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현재까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표적인 업체로는 지난 2021년 6월 절차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있음.

* 출처 : 독일 2위 은행, 디지털 자산 및 거래 서비스 자격 신청 (경향게임스 유동길 4/25)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65>

0 피델리티

미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퇴직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가 미국 퇴직금 제도인 401(k)와 연계, 투자 포트폴리오에 BTC(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는 계좌를 출시하면서임. 401(k)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적립한 부분에 50~100%가량 추가해 적립해주는 투자/저축 계좌다.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미국인들의 주요 은퇴 플랜으로 꼽히며

한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비슷한 제도임. 피델리티는 컨설팅 기업 세룰리 어오시에이츠(Cerulli Associate) 조사 기준 이 401(k) 운용자금의 3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운용사임. 26일(현지시간)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피델리티 직장 디지털자산 계좌(DAA)’를 올해 말 출시한다고 밝혔음.

* 출처 : 퇴직금도 가상자산으로...피델리티, BTC 투자 계좌 출시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세진 4/27)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52>

0 텍사스 포트워스

CNBC는 “텍사스 주 포트워스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최초의 시 정부가 됐음. 포트워스는 26일 시의회 회의에서 시청에서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가 기증한 ‘안트마이너 S9 비트코인’이라는 채굴기 3대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음.

매티 파커 포트워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은 포트워스를 모른다. 우리는 그런 인식을 바꾸고 싶고 가상자산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CNBC에 말했음. 다만, 이번에 발표된 비트코인 채굴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포트워스는 6개월 간 테스트를 거쳐 실제로 시 차원에서 채굴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지에 대해 재평가할 예정임.

* 출처 : 텍사스 포트워스, 미국 최초로 시에서 직접 비트코인 채굴한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범수 4/27)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60>

0 골드만삭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음.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에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가상자산의 특성상 24시간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담보 대출 서비스는 흥미로웠다”고 말했음.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담보 대출

은 가상자산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음.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한 곳은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며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블록체인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고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을 위해 은행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힌 이후 가상자산 관련 펀드를 출시한 바 있음.

- * 출처 : 월가에 부는 '코인 바람'...골드만삭스, 비트코인 담보 대출 시작
(뉴스퀘스트 이태웅 4/29)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70>

o بانک 드 뤼박 앤 시에

프랑스의 은행인 بانک 드 뤼박 앤 시에(Banque Delubac and Cie)가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해당 국가에서 최초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DASP)로 등록됐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해당 은행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 등록은 스위스의 가상화폐 수탁 제공 업체인 타우르스(Taurus)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음.

뱅크 드 뤼박 앤 시에 은행은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및 테조스에 대한 이용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기타 디지털 자산의 경우 고객들의 수요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확인됐음. 뱅크 드 뤼박 앤 시에 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에는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및 가상화폐 기반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Staking)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출처 : 프랑스 은행 고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자산투자 가능
(경향게임스 유동길 4/29)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99>

o 구찌

4일(현지시간) 해외 유명 패션매거진과 가상자산 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구찌는 이번 여름에 직접 운영되는 모든 북미 매장에 가상자산 결제를 확장할 계획임. 구찌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HT), 라이트코인(LTC), 도지코인(DOGE) 등과 함께 미국 달러에 고정된 5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 총 10개 이상 가상자산으로 지불을 허용할 방침임.

구찌는 다른 명품 브랜드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다른 명품브랜드보다 빠르게 대체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NFT)를 출시하기도 했음. 구찌 최고경영자(CEO) 마르코 비자리는 “구찌 결제 시스템 내에 가상자산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고객에게 향상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때 항상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음.

- * 출처 : 명품 '구찌'도, 가상자산으로 산다...이달 말부터 'BTC·ETH·DOGE' 등 결제 허용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5/5)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37070>